



2021 YANG YOUNG HOE

스물아홉번째 이야기

Goalball, 소리만 의지하여

[친밀하심을 따라⑩-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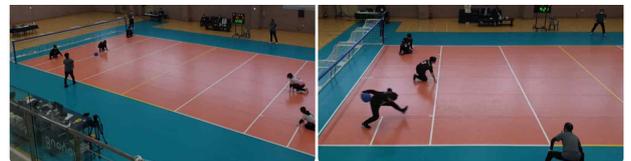
올해 5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 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았 습니다. 그 후 부친 시각장애인 협회에 가입하여 점자와 요리나를

배우며 활동하던 중 골볼(Goalball) 국가대표 감독님의 권유로 골볼을 시작했고, 10월 20~25일간 포항에서 개최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를 겪고 있던 저에게는 운동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제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두려움과 함께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는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골볼(Goalball)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입니다. 2차 대전 후 1946년 실명한 군인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의 ‘한스 로레첸(Hans Lorezen)’과 독일의 ‘세프 라인들 (Seep Reindl)’이 고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재활과 놀이의 수단으로 즐기다가 점차 스포츠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1976년 국제 장애인 경기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6년에 시범종목으로, 1987년 제7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골볼 경기장의 크기는 길이 18m, 폭 9m로 각 라인은 너비 5cm의 테이프로 표시하며, 그 밑에는 선수들이 만질 수 있도록 굵기 3mm의 끈을 넣어야 합니다. 골대의 표면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고 공은 거의 농구공과 비슷한 크기로 다른 공과는 다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무겁게 제작되며 공 표면에 약 1cm 직경의 구멍이 8개가 있으며 공 속에는 소리나는 방울이 들어 있어 공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납니다. 모든 선수는 아이패치와 고글을 착용하여 모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방식은 전후반으로 12분씩 나뉘어 총 24분 동안 오직 소리에만 의존하여 진행되는 스포츠입니다. 한 팀은 3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고 공격 측에서는 상대 골대로 공을 던져서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비 측은 그 공을 몸으로 누워서 막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조용한 경기장에서 오직 소리만을 듣고 움직이는 골볼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것을 깨닫습니다. 경기 훈련을 통해 주의를 기울여 소리를 듣는 연습과 그 소리가 들리면 나의 몸을 바로 움직여야 하는 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또한 한 팀의 3명의 선수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상대의 공을 막을 수 있으며 수비가 공격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진리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그러한 진리를 내 몸으로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과 체전에 참여하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선수들을 만나고 서로의 아픈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연락이 온 선수들의 이야기는 내가 왜 그곳에 갔어야 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어 하지 못했던 학업을 다시금 하겠다는 선수분도 계셨고, 믿음이 없는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운동은 두려움에 대응하는 것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 평생 경험하기 힘든 큰 경기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운동을 하며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기쁨과 승리했을 때의 환희는 만약 제가 '안주'라는 달콤함을 택했다면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소리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이번 체전을 통해 저에게 주신 큰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글쓴이 한정아 집사]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며, 영어 어린이 예배 코치로 섬기고 있다. 사회복지사(1급)로, 한국어 강사로,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The하기> 시민옹호단체 회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정리 및 편집: 최선]



선교지  코트디부아르



[대표 작물:카카오]

사람들은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을 즐겨 먹지만, 그 원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겨울에 마시는 따끈한 초콜릿 한 잔! 카페 메뉴에는 hot cocoa라고 적고, 미국 사람들은 '핫 코우코우'라고 발음한다. 초콜릿은 카카오 나무 열매의 씨앗인 카카오 콩을 사용한다. 열매에서 분리된 콩은 제조 과정을 거쳐 초콜릿의 원재료, 카카오닙스, 코코아 분말 가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롯데 제과가 가나에서 카카오 원료를 수입해서 가나 초콜릿이란 상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누구나 가나가 카카오 생산국인 것을 알지만 실제로 카카오 최대 생산국은 단연 코트디부아르이고 두 번째가 가나이다. 이 두 나라가 생산하는 카카오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매주 토요일 6:30 서빙고 한동홀에서 대면으로 BEE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On/Off Line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요!

3. 말씀과 함께하는 겨울!! 겨울방학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 '교리론2', '성경을 펼쳐라2' !!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로마서 8장 암송 'BEE수와 함께 8주 동안 8장 복습 ()안에 알맞은 답을 적어서 BEE수 편집팀장 김옥숙 개인 카톡이나 이메일(joyfuloksuk@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첫 번째 정답자에게 맛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19-23절 정답을 먼저 보내주신 김** 집사님께 쿠폰을 드렸습니다

[8장 24-27절]

24. 우리가 소망으로 ()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으로 기다릴지니라

26. 이와 같이 ()도 우리의 ()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11월 6일(토) 다시 시작된 대면 BEE 기도모임]

